

# 여산 스님의 회상으로 본 5.18

연극 '푸르른 날에' 남산예술센터서...5월 4일부터

남산예술센터와 신시컴퍼니가 공동 제작하는 '푸르른 날에'가 오는 5월 4일~6월 2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다시 오른다. 푸르른날에는 2011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초연된 이후 그해 대한민국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평단의 고른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연극 '푸르른 날에' 한 장면

차발이 보이는 암자에서 수행 중인 스님 여산(과거의 오민호)이 조카이자 '딸'인 운화의 결혼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연극의 역사적 배경은 5.18광주민주화쟁이다.

디테일한 신화로 관객들을 찾는다.

이 작품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21세기 신파극'이라는 과감한 시도로 새롭게 조명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왔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 등 신세대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연출가 고선웅 씨는 "신파는 더욱 디테일해질 것이며 더욱 통속적으로 연출 될 것이다. 처음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창작연극이 이렇게 관객들의 사랑 속에서 매년 5월, 세 번째 무대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한다. (02)758-2150 정혜숙 기자

지난해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푸르른날에는 2013년 좀더

# 빛을 찾아 떠나는 마음의 여정

서현 첫개인전 스페이스선



서현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서현 작가의 첫개인전 '빛을 찾는 여정'이 5월 13일까지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서현 작가는 "마음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독실한 불자이신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마음의 시작점을 찾아 방향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불화를 배우게 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시장의 공간에 놓인 반사재질의 조형물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벽면에 자유로운 빛그림의 모습들이 투영된다. 이 빛그림은 내면의 자아 즉, 마음의 움직임이 현

두려움을 안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딘 20대의 작가 서현은 불교의 교리에 자신을 녹여 만든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실에 반영되는 모습들의 참나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성찰시키고 있다. 서현 작가는 "종종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고통에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점을 찾으려는 것이 내 작업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실은 내면의 자아 즉, 마음의 움직임이 현

# 연꽃으로 피어난 불심의 향기

한국불교사진협회회원전...5월 6일부터 서울 메트로미술관서



하호숙의 '열반'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박봉수)가 주최하는 '제 18회 한국 불교사진협회회원전'이 5월 6일~26일까지 서울 메트로미술관을 비롯 봉은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연꽃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연꽃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봉수 회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의 전사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불심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전시는 1차 5월 6일~10일 서울 메트로미술관, 2차 5월 11일~16일 봉은사, 3차 5월 21~2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된다.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하호숙의 '열반'

# 찬불가와 선화가 만나 부처님 예경·찬탄

불자가수 아윤 전승은 현대불교음반 '산술바람' 발매

"노래를 불러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음반을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불자가수가 되고 싶었죠. 저의 노래가 많은 분들께 기쁨을 주고 또 찬불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제 기쁨이죠"

불자가수 아윤(본명 전승은)이 현대불교음악집 '산술바람'을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 발표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옴마니 반메흠, 나비꿈 등 10여 곡을 담았다. 특히 이번 신보에는 석골사 주지 도심 스님의 선화가 곡마다 어우러져 불교음반의 운치를 더해준다.

"17살에 통도사 청소년 수련을 가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죠. 그즈음에 알게 된 분이 양산 통도사 사명암에 주석하시는 단청 탕화의 대가이자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동원 스님입니다. 그분한테서 불화를 배우며 그곳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동원 스님의 상좌이신 도심 스님이 이번 앨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윤은 오대산 상원사, 송광사, 통도사, 봉은사 등을 찾다니며 매년 3천배를 한다. 그리고 지극히 기도를 하다보면 내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우러나온다고 한다.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찍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일찍 독립을 하게 됐죠. 부모님 보초하러 편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제 신세가 서러울 때도 있었어요. 집안이 그리울 때는 절밥 먹으로 절에 갔어요. 덕분에 절에서 운력도 많이 하고 공양간 보살님들이랑 친해졌죠. 지금은 어린시절의 기억이 아프지 않았요. 날아주신 분도 길러주시분도 모두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지난해 낸 1집 음반에 이어 이번 새앨범에도 담은 '모(母, 작사곡 아윤)'는 대중가요지만 관세음보살님과 부모은중경을 생각하며 곡을 썼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서정적인 멜로디로 담아 낸 것이다. 아윤은 지난 17년 동안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주로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찾게 됐다. 부모의 정이 그리웠던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이런 그녀가 첫앨범을 내며 정식으로 데뷔를 하는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첫 대중앨범 '흑백낙서'를 냈

옴마니반메흠, 나비꿈 등 10여곡 담아 도심 스님의 선화 앨범에 삽입 "작은 암자 돌며 공연하고파"

으니 말이다. "속세에 업이 많아 계속 회사를 다니며 노래를 불렀어요. 물론 밤무대 같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목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작년에 직장을 그만 두고 들구름문화공작소라는 기획사를 차렸고 6년 전 준비했던 앨범을 지난해에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꿈꾸는 삶은 음원 사이트에 명상음악을 포함한 현대불교 음악 장르를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는 CCM카테고리가 있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불교음악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 곳곳의 암자를 찾다니며 작은 콘서트를 열어 많은 분들께 찬불가의



불자가수 아윤이 현대불교음악집 '산술바람'을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 발표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석골사 주지 도심 스님의 선화가 어우러진다. 그림은 '부처님이어' (그림 왼쪽)와 '합장 차한잔'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윤은 들구름문화공작소 대표 및 들구름악단 악단장, 대한민국특수임무공작회 홍보대사다. 음반 프로듀서, 작사·곡은 물론 산사음악회 기획과 공연을 하고 있



다. 첫 번째 앨범으로는 '흑백낙서'가 있으며 조계사 단독콘서트 '아윤과 들구름 악단의 부처님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등을 기획·연출했다. (02)2052-177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춤으로 풀어가는 부처님의 생애

파사무용단 '붓다, 일곱 걸음의 꽃'...5월 14·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루었다. 첫 발, 그리고 두 번째 걸음, 사위를 두루 돌아보고 마침내 일곱 걸음,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나 아닌 게 없고 나 또한 모든 사물들과 다르지 않으니 붓다(Buddha)는 세상을 향한 일곱 걸음만으로 이미 수천 년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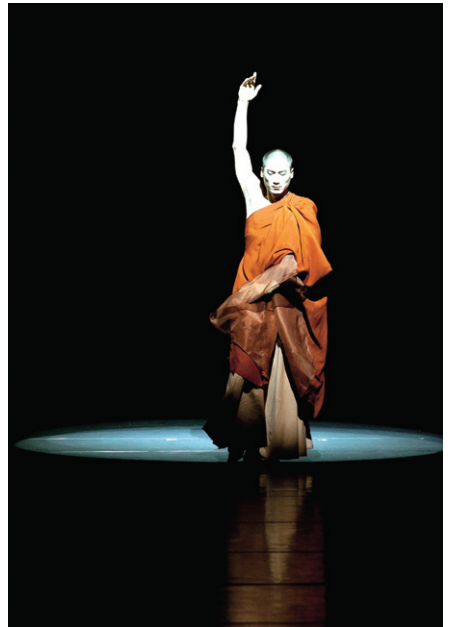
파사무용단의 2013년 야심작 '붓다, 일곱 걸음의 꽃' (연출 황미숙, 조주현)이 5월 14일~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펼친

다. 지난해 파사무용단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초연된, '붓다, 일곱 걸음의 꽃'은 2013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쉽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시타르타로 태어나 붓다로 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나간다. 파사무용단은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으며 동양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를 탄생시킨 부처님의 행적을 현대무용으로 이미지화 시킨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붓다, 일곱 걸음의 꽃'은 6장의 구성을 통해 인간이되, 다양한 문화와 예술로 다시금 피어난 여러 장르의 예술들을 불교문화 안에 모았다. 파사무용단은 "현대무용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불교 문화의 또 다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무용만이 지닌 춤의 언어로 너무 극화시키거나 연대별 나열식이 아닌, 음악과 미술 거기에 춤이 중심이 되는 독특한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설명한다.

한편, 파사무용단은 한국적인 현대무용 개발과 보급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의 작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070)7558-5710 정혜숙 기자



'붓다, 일곱 걸음의 꽃' 공연 장면

**생각- 그 이상의 한약향기**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로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정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행사, 선물용 대량 구매시 상담해 주세요

고요한 향기 퍼져~  
고요해 지는 마음

동의보향  
062)385-9954

제조원 | 수품림 | 주문전화 | (062)385-9954 | 010-5607-3313 |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건강한 자연을 담은 웰빙문화의 시작

**히노끼 편백차탁**

크기 : 55x32x12cm

**출시기념 할인행사 +150,000원 40% → 90,000원**

**편백차탁 Healing**

- 일본산 히노끼로 100% 국내 제작입니다.
- 전통가구 소목장이 수공예로 제작하여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 편백(히노끼) 고유의 향은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 피톤치드의 항균효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의 다과, 음료 등의 차탁으로 사용하시면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신원정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품림수품대(주) www.supu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474-0011